

시론



박 남 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퇴직한 지 3년째 되어가는 동료 교수가 올 여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고 한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10여 년 가까이 유학 생활을 했었다. 교수로 재직할 때는 학생 교육 뿐만 아니라 외부 강연, 학회장 역임 등 학술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대학원장도 두 번이나 역임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미국 대학 박사과정에 지원해, 올 9월 학기부터 학비 면제와 생활비를 받는 조교로 선발됐다고 한다.

퇴직 후 방통대에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교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그 나이에 다시 유학길에 오르는 교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는 “사람은 끝없이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과 배움을 중단한 사람으로 나뉜다”며 자신은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유학은 단지 학위를 하나 더 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동시에 해당 대학에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해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농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뜻을 두고 있다고 했다.

다시 유학을 가야겠다고 결정한 후부터는

미국 유학 떠나는 일흔이 다 된 퇴임 교수

식단 조절, 근육운동, 등산 등을 통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1년 사이에 건강이 아주 좋아졌단다. 꿈이 생기니 삶이 더욱 활기차지더라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이 나이에도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 가슴이 다시 뚝뚝”며 활짝 웃었다.

잘 아는 것처럼 최근 퇴직자 중에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전문 지식과 역량, 그리고 의지의 3박자를 갖춘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은퇴자’가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전환기 인재’이다. 문제는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사회에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다시 유학길에 나선 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거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전환기 인재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 한 가지 현실적인 대안으로, 퇴직자들에게 초·중·고 및 대학생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실제로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어린 학생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진로와 삶의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퇴직자들이 멘토로 나선다면, 학생들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멘토링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지혜와 경험, 가치관까지도 함께 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세대 간 단절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자 입장에서든 멘토링은 새로운 삶의 동기와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퇴직자와 학생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해 멘토풀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멘토를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멘토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기법, 의사소통 능력, 세대 간 소통의 이해 등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퇴직자 멘토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후배 세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을 결심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이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퇴직’은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찾는 고령의 청춘이 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마지막까지 배움과 기여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의 도전이 잘 마무리돼 후배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는 선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고령 인구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기회를 마련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기고



임 택
광주 동구청장

“매년 이맘때쯤이면 무등산에 (등산 대신) 인문 즐기러 간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무등산에서 쉼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인문 축제라니 최고였다”고 할 정도로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개최 이후 후일담이 쏟아졌다.

듣기만 해도 ‘인문도시 광주 동구’에서 기분 좋아지는 말이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이틀간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무등산이라는 자연공간에서 사색과 쉼, 독서와 힐링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에 필요한 힘과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올해는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테마로 하는 ‘소년이 온다’ 문학기행에 참여하고자 일본 독자 50여 명이 광주 동구를 찾았다. 또한 축제장 곳곳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들이 많아 어른만을 위한 인문축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서 의미를 더했다.

동구 인문축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축제이지만, 인문도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는 광주 동구의 상징이자 자랑이다. 특히 올해 인문축제는 ‘지구’를 위한 ‘인문 Forest:Earth’를 콘셉트로 기후 위기 감수성과 지속

일상의 쉼표와 사색 공간이 된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가능한 메시지를 콘텐츠로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편백숲 생물 다양성 대탐사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지구를 위해 용기내!’ ▲신문지·박스를 재활용해 만든 무등산 동물 인형탈 쓰기 ▲폐막공연 ‘업사이클 뮤지’는 관객을 압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업사이클 뮤지는 제 뒤편을 다한 플라스틱과 강통이 업사이클 현악기(바이올린·첼로)로 변신해 축제를 찾은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전했다.

해마다 동구 인문축제 기간 중 무등산 중심사 지구 일원은 ‘쉼(休)과 사색(思索)의 공간’ 속에 인문과 예술, 지혜와 마음, 자연과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거대한 복합문화의 숲이 된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소설가 김탁환과 이금아·최향랑 작가, 설치미술가 최병수와 울림이 있는 ‘인문 토크’, 청년 독서모임 회원들과 함께하는 책과 음악이 있는 ‘청년 문학 버스킹-요즘 무슨 책 읽어?’ 등은 편백숲에 모인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완벽한 프로그램이었다.

지역 극단 토박이가 1980년 5월 광주를 담은 연극 ‘오! 금남식당’과 의재·오방·석아·현덕신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다룬 시간여행 콘셉트의 야의 연극 ‘시간의 숲, 무등’은 등급이나 차별이 없는 무등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기분을 들게 했다.

옛 선조들의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삶이 부럽지 않을 만큼 충만한 이틀이었다.

무엇보다 동구 인문축제가 주는 느낌과 여유 그리고 잠시 내려놓기를 하면서 호강스

못지않은 호사를 누렸다.

산길을 걸으면서 흘리는 땀방울, 가쁜 호흡은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무사함에 감사함을 느끼고, 1수원지 내 편백숲이라는 자연의 품에서 인문 토크, 문학 버스킹 참여는 사유의 힘을 기르기 좋은 시간이었다.

중심사와 오방 수련원에서 하는 티(tea) 클래스와 요가, 심양볼 소리를 들으면서는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일상에 쉼표(.)를 찍기도 했다.

올해 특별히 마련된 한강 작가를 테마로 한 특별전과 한·일 교류 문학기행과 한·일 독자의 밤에서 펼쳐진 강강술래는 ‘품격 있는 인문도시’에서만 가능한 특급 이벤트였다.

그렇기에 물질만능주의가 우선시 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되새기는 요즘이다.

‘무위(無爲)’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흘러가는 자연의 변화에 몸을 맡기라는 뜻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인문 정신’이다.

어떤 명확한 정의로 규정할 수 없지만, 정신적 풍요로움을 통해 개인이 모여 형성된 공동체로 나아가면서 해법을 찾기도 한다.

무등산 아래 편백숲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시대가 묻고 인문이 답하는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를 통해 내내내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투고



구급대원으로서 화재나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는 천식 환자들을 자주 만나다. 특히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

은 천식 환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천식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폐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봄철은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외부 자극이 많다. 이는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 특

봄철 천식, 철저한 예방·관리 필요

히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환경적 요인으로 증상이 악화된 환자들을 자주 접한다.

천식 환자는 자신의 증상과 유발 요인을 알고, 흡입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타 작용제는 기관지 확장에 효과가 있으나, 흡입용 스테로이드와 병용해야 안전하다. 약물 사용은 반드시 전문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먼지 제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한

경 관리도 중요하다. 상태 변화 시에는 폐 기능 검사 등으로 치료 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중증 환자는 전문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갑작스런 호흡곤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편안한 자세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천식은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므로, 세심한 주의로 봄철을 잘 보내길 바란다.

(정안식·신안소방서 지도119안전센터 소방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인수위 없이 시작한 새 정부에 국민의 미래가 달렸다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 파면 후 불과 60일 만의 급작스런 선거였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선포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여파로 치러진 제21대 대선이 무사히 막을 내렸다. 당선 확정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새 정부는 국정 안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출발선에 섰다. 취임식도 국회에서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진행된다. 대표 권한인 군통수권도 동시에 바로 행사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파괴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 비전보다는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열했다. 보수 성향 단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댓글 조작단 운영 의혹도 막판에 불거졌다. 선거 과정 중에 현수막·벽보 등 훼손, 답페이크, 폭력 행위 등이 난무했다. 사전투표 기간 방해, 소란도 적발됐다. 심지어 후보 살해 협박까지 한 참 선을 넘었다. 상대 정당 이미지 훼손을 노린 ‘노쇼’ 사기도 접수됐다. 경찰청은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 폭력은 2배,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갑작스러웠다. 헌정사 두번째의 대통령 탄핵

과 함께 조기 대선이 실시됐다. 2027년 예정에서 2년 앞당겨졌다. 평온한 일상을 뒤흔든 45년 만의 계엄, 그리고 6개월이 지났다. 또 2달 간의 선거를 통해 차기 정부가 출범했다. 돌로 쪼개진 국민적 분열을 극복하고 진영을 망라해 포용하며 회복의 시대로 나아가는 대통령합의 리더십이 시급하다. 대통령의 가장 중차대한 과제가 되는 셈이다. 최고 지도자 공백 상태에서 정치 상황도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제1야당의 후보는 방탄조끼를 착용했고, 방탄유리 뒤에서 유세를 펼쳐야 했다. 더욱 굵아가는 사회 갈등을 속히 봉합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평범한 시민들이 운몽으로 막아냈다. 현재의 파면선고를 기다리며 차가운 겨울 밤을 거리에서 지새웠다. 숨돌릴 틈이 없다. 국가 재건을 서둘러야 한다.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된 미래 비전을 차근차근 실천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진짜 민주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할 일이 적지 않다. 총칼보다 강한 주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였다. 패자는 곧바로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불법 비상계엄 이후 국론을 결집할 새 대통령의 역할이 엄중하다고 할 것이다.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돼야 할 ‘COP33’ 여수 유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198개국 이 참석해 기후변화협약 이행 방법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관련 국제회의이다. 2028년 제33차 회의가 아시아·태평양에서 열릴 예정으로, 대한민국이 참여하면 아·태지역 그룹에서 협의를 통해 개최국이 결정된다. 전남도가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기 위해 총력전이다. 최종 확정까지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유엔기후 총회(COP)는 1985년 독일 베를린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남도는 우리 정부가 제28회 행사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하면서 33회로 선화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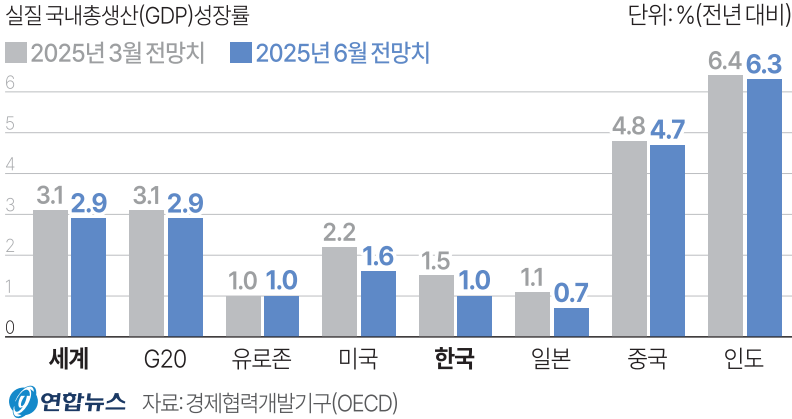
남해안 남중권은 전남 동부의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군과 경남 서부의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고성 등 12개 시·군이 해당된다. 한려해상, 지리산 국립공원, 람사르습지가 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만·보성 갯벌 등 다양한 기후 특성이 공존하는 천혜의 지역으로, 전 세계의 기후 이슈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부대행사까지 최고의 입지 조건을

보유했다. 전남도는 최근 여수시청에서 현장 답회를 열어 COP33은 대한민국이 기후 리더십을 갖춘 선진국임을 전 세계에 천명하고, 지방주도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앞서도 협력회의를 잇따라 마련, 지원 조례 제정과 인적 네트워크 및 예산 확보, 주요 활동 전략 등에 공감하며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국제기구와 NGO 등을 통틀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권위가 있다. 남해안 남중권 유치 시 국가균형발전 뿐 아니라 동서 화합을 위한 최후의 사업으로 평가된다. 사실 2008년부터 계속 도전해오고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특히 전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의 전환경제 구조조정과 연계,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중대 이정표가 될 것이다. 남해안 남중권의 투자가 강력하다. 2026년 여수세계세박람회 성공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OECD 2025년 세계 경제 전망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월(현지시간)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하며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경우 성장 전망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석 달 전 전망치인 3.1%보다 0.2%포인트(P) 더 떨어진 2.9%로 예측했다. 2026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3.0%에서 0.1%P 내린 2.9%로 조정했다. OECD는 관세 전쟁 신호탄을 쏘아 올린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 내년엔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 2.2%보다 0.4%P나 떨어졌다.

미국과 무역 긴장을 겪고 있는 캐나다의 올해 성장 전망은 지난해 1.5%에서 둔화한 1.0%로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 보복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유럽은 기존 예측치와 변동 없이 올해와 내년 각각 1.0%와 1.2%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국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